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 광주시 부산으로 바뀐 까닭은?

광주시가 지역 성장동력인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MICE산업 공공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관광산업의 핵심 요인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촉매다. 21세기 국가 간, 지역 간 관광·회의 산업 유치전이 가열되고 국가 간 문화 예술을 토대로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 같은 지적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아닌 부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3일 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광주 개최를 염두에 두고 사전 실사를 했지만 특급호텔 부재와 그에 따른 경호 숙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국 아세안문화원이 있는 부산 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광주에서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돼야 한다는 데

아시아문화전당 개최 준비

사전 실사 해보니

특급호텔 없어 숙박 등 문제

아세안문화원 있는 부산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MICE산업 인프라 확충 나서야

공감하지만 숙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행사가 열리는 것은 광주뿐 아니라 문화전당 차원에서도 손실이 크다"고 덧붙였다.

사실 문화전당 내에는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뿐 아니라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아시아문화원이 있다. 지금까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와 같은 문화예술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고 아셈(ASEM)문화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오는 10월 말에는 문화전당 개관 4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37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문화주간 행사가 열린다. 이 기간에는 한-아세안 문화장관 회

의가 열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어젠다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통 오케스트라 특별공연과 인도 영화제, 아시아 무형문화유산 영상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에 광주시의 숙박시설이 취약하다는 점에 있다. 광주시의 '관광호텔 현황'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는 5성급 호텔은 전무한데다 4성급도 2개(325실)밖에 없어 사실상 MICE를 비롯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 문화전당 인근에는 4성급이 없고 3성급 3개와 2성급 1개만 있어, MICE 등 글로벌한 행사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으로 제2컨벤션센터나 어등산에 특급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정상궤도에 오를지 미지수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일정부분 우려가 현실화되는 점이 있다"며 "특급호텔 건립 등 MICE산업도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 문화전당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3일 오전 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방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뿌렸던 석회와 소독약품 등이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휩쓸려나간데 따른 것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돼지열병’ 한강 이남 내려왔나

김포서 의심신고 ... 돼지 4마리 유산 증상·1마리 폐사

전국 방역 초비상 ... 양돈농가·관련시설 일제 소독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김포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될 경우, 경기도 파주·연천에 이어 국내 세 번째 발병 사례가 된다. 아울러 한강 이남에서 발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의심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 방역관을 현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이는 한편, 이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는 늦어도 24일 오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와 함께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등을 이동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농장주가 오늘(23일) 모든(어

미돼지) 4마리가 예정일보다 이른게 유산 증상을 보여 김포시에 신고했다"며 "이후 다른 방에 있던 모든 1마리도 폐사했는데, 당시 배가 불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농장은 모든 180마리를 포함해 돼지 1800마리를 기른다.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파주 농장으로부터 약 13.7km, 연천 농장으로부터 45.8km 각각 떨어져 있다. 김포 의심 농장의 반경 500m 내에는 이 농장을 포함해 3곳에서 돼지 27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범위를 3km를 넓혀 보면 총 8개 농장에서 약 3275마리를 사육 중이다. 또 확진 시 방역대에 해당하는 3~10km 범위 내에는 4만7000마리가 있다.

이 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인 6개 시·군 안에 자리하고 있다.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농장은 3주간 다른

지역으로 돼지를 반출할 수 없고, 지정된 도축장 4곳에만 출하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농협 보유 소독 차량과 군 제독 차량 등을 동원해 양돈 농가와 관련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했다. 백신과 치료 약이 없어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데 이어 18일 경기 연천에서도 확진됐다. 20일에도 파주에서 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한편, 방역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2개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에 힘을 쏟고 있다. 파주 역학 농장 324곳 가운데 142곳을 정밀검사해 89곳에서 음성 결과를 얻었다. 연천 역학 농장 220곳 가운데 135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83곳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파주·연천에 있는 농장 619곳을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펼쳐 특이 사항이 없다는 응답을 얻었다.

/연합뉴스

검찰,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자녀 관련 대학 4곳도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찰하는 법무부의 현직 수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초유의 일이다. <관련기사 4면>

이번 자택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이홍재 세상만사 '만약 청문회가...' ▶2면

남광주아시장 3년 만에 존폐 기로 ▶6면

홀런타자 류현진 13승도 잡았다 ▶2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초청

“영원한 젊은 오빠~”

남진 토크콘서트

가요계의 전설 남진 음악 인생 스토리 ‘님과함께 50년’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7기 원우가족과 함께 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저녁 6시30분
광주 상무지구 옥과 한우존 3층 대강당

진행 | 민채은
‘SBS 웃찾사’ 개그우먼 배우